

김정일의 중국 방문의 두 가지 의도: 전술적 국면전환과 2012년 전략적 기반 조성

박 형 중 (남북협력연구센터 선임연구위원)

Online Series CO 11-16

김정일은 6박 7일(5.20~26)의 중국 방문을 마치고 귀국했다. 지난해 5월과 8월에 이어 일 년 사이 세 번째 방문이었다. 이번 방문의 의도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그 첫째는 북한이 중국과 협력하에 대외 및 대남 관계에서 유화국면으로 확실하게 전환한다는 것을 널리 선전하고 주변국에게 이를 따르라고 압박한 것이다. 그 둘째는 중국과 관계를 재확인하고 주변국에 과시함으로써 2012년 이후에도 북한의 전략적 생존 기반이 탄탄하게 유지될 것임을 재확인시킨 것이다.

우선 첫 번째의 전술적 의도를 보자. 북한은 2009년과 2010년 2년에 걸친 대외 및 대남 강공을 통해 전략적 우세를 재확보했고 이를 바탕으로 2011년 협상 국면을 주도함으로써, 2012년을 바라보며 정권 생존에 우호적이고 안정된 여건을 마련하고자 했다. 이러한 의도에서 -2010년 말 한국에서의 일반적 예상과는 달리-북한은 2011년 들어 한국에 대해 대화공세를 시작했다. 그러나 2월 군사실무회담 결렬, 4월 백두산 화산 관련 남북협의 결렬은 북한이 의도대로 상황을 이끌어 갈 수 없음을 보여주었다. 아울러 중국은 4월 6자회담에 관한 3단계 제안(남북 6자회담 수석대표회담(남북비핵화회담)-미·북회담-6자회담)을 제시했지만, 진전이 없었다. 이에 김정일은 중국을 전격 방문함으로써, 북한과 중국 사이의 의견일치를 재확인하고, 북한이 유리한 구조 속에서 남북관계 및 6자회담을 추진해나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김정일이 후진타오와의

정상회담에서 발언한 내용을 통해 나타난다.

“북한은 현재 경제 건설에 집중하고 있으며 매우 안정된 주변 환경을 필요로 합니다. 우리는 한반도 정세가 완화되기를 희망하며 한반도 비핵화 목표를 견지할 것입니다. 우리는 6자회담을 조기에 재개할 것을 주장합니다. 우리는 남북관계 개선에도 줄곧 진정성을 갖고 있습니다. 중국이 6자회담 재개와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해 노력해온 점에 감사를 드립니다.”¹⁾

북한이 국면전환을 확고하게 주도하고자 하는 배경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로 추정된다. 첫째, 2009년 미사일 실험, 2차 핵실험, 2010년 천안함 공격, 연평도 포격, 그리고 농축우라늄 능력 과시를 통해 북한은 전략적 우세를 재탈환하는 데 필요한 카드를 충분히 축적한 것으로 판단했을 것이다. 다시 말해 북한은 핵 능력을 증가시켰고, 한국에 대한 실효적 위협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재과시했다. 특히 북한의 추가적 도발과 이에 대한 한국의 확고한 보복 대응 가능성이 우발적 전쟁발발의 가능성을 높인다는 우려를 미국 내에 유포시키는 데 성공했다. 둘째, 북한은 2009년과 2010년에서와 같이 강경 도발 공세를 계속하는 것이 유리하지 않다고 판단했을 것이다. 천안함과 연평도 도발 이후 한국의 대응 결의와 태세가 강화되었다. 천안함 공격과는 달리 연평도 포격은 한국에서 대북여론의 역풍을 불러일으켰다. 또한 중국도 북한의 도발을 우려하면서, 2010년과는 달리 2011년 1월 미국과의 정상회담 이후 미국과 타협적 노선을 걸었다. 동시에 미국과 함께 한반도 안정, 남북대화 중요성, 9.19 공동성명 이행을 강조했다. 중국이 2011년 4월 남북비핵화회담을 1단계로 하는 6자회담 3단계 안을 제안하자 북한은 이것이 한국의 입장을 더 중시한 것으로 판단했을 것이다. 북한은 2009년과 2010년 대외 강경 노선을 통해 대외적으로 힘을 과시했고 대내적 긴장과 단합의 분위기 속에서 2010년 9월 당대표자회를 치러 김정운을 등장시킴으로써, 대내 정치적 성과를 거두었다. 이러한 성과를 굳히자면, 대외 도발보다는 대내 안정이 더 중요하다고 북한은 판단했을 것이다. 아울러 북한은 만약 또 다시 도발하는 경우, 2010년 말부터 두드러진 물가불안과 식량난 등 내부 경제 불안이 가중될 것으로 판단했을 것이다. 셋째, 한국과 미국이 보이기 시작한 허점을 활용할 필요를 느꼈을 것이다. 2010년 10월 우라늄 농축 능력을 과시한 이후로, 미국에서 북한에 대한 ‘전략적 인내’ 정책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타났다. 이를 반영한 미국의 태도는 1월 미·중정상회담, 3월 미·중전략경제대화 이후로 보다 가시화되었다. 5월 24일부터 닷새 일정으로 미국의 대북인권특사인 로버트 킹이 북한 식량사정 평가를 목적으로 방북했다. 한국에서도 5.24 대북 재제조치 1돌을 맞아 또한 2012년 대선을 앞두고 대북정책 논쟁이 활발해지기 시작했다. 북한이 도발이 아니라 협상으로 국면전환 했음을 확실하게 각인시키는 경우, 한국과 미국 내부의 허점은 더 커질 수 있다.

다음으로 김정일의 방중의 두 번째 의도는 중국과 관계를 재확인하고 주변국에 과시함으로써 2012년 이후에도 북한의 전략적 생존 기반이 탄탄하게 유지될 것임을 재확인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주지하다시피, 내년인 2012년은 북한의 주변 환경에서 불확실성이 높은 시기이다. 한국과 미국에서 대통령 선거가 있고, 중국에서 새로운 지도부가 등장하며, 북한은 ‘강성대국의 대문을 여는’ 어떤 의미 깊은 행사를 해야 할 것이다. 북한은 2012년 각국의 정치변화가 초래할지 모르는 불확실성을

1) 차대운, “북중 정상 대화내용,” 『연합뉴스』, 2011년 5월 26일.

선제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김정일 방중이 또 필요하다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 불확실성을 관리하자면, 먼저 앞에서 서술한대로 전략적 우세의 바탕위에서 북한이 주도적으로 국면을 전환하여, 남북관계 개선과 6자회담 개최를 추진함으로써 북한의 생존 상황을 안정시켜야 한다. 다음으로, 일반적으로 한국의 언론이 이번 방중의 주목표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처럼, “식량원조를 포함한 중국의 지원 확보, 북·중경협 활성화, 후계체제 인정 등의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

김정일은 방중과 관련한 두 가지 의도와 관련하여 어떠한 성과를 거두게 될 것인가? 그 실질 성과는 그리 크지 않을 것 같다. 첫째, 이 번 방중을 통해 어떤 의제에서 새로운 돌파구가 마련된 것이 없다. 남북관계, 6자회담, 북·중경협, 후계체제와 관련하여 북한과 중국은 대체로 과거의 입장을 재확인했을 뿐이다. 둘째, 북·중간의 관계 강화에도 불구하고, 또는 관계 강화에 비례하여 두 나라간의 구조적인 전략적 불신은 여전히 상존하거나 또는 상승할 수 있다. 이 번 방중을 통해 김정일은 중국이 북한을 배신하는 것을 심리적으로 약간 더 어렵게 만드는 데서 일정한 성과를 거둘 수 있었을 것이며, 중국은 북한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 번 확인하고 다짐받는데 또는 경고하는데 성과가 있었을 것이다. 셋째, 만약 중국이 북한의 행동을 제어하는데서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게 된다면, 동시에 만약 중국이 한국과 미국의 태도를 완화하는데 실패한다면, 형세는 북한에 불리해질 수 있다. 북한은 강경도발을 통해 한국과 미국을 압박하고자 하는 카드를 쓰기 어렵게 되는 대신, 고립된 채로 더 오랜 시간을 버티어야 하기 때문이다. 넷째, 가장 큰 성과가 있었다면, 이번 방중이 북한 내부에서 정치 안정에 대한 심리적 확신을 다소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점이다. 북한 당국이 지난 번 두 번의 방중과 마찬가지로 이번 방중을 후계체제와 정권 생존에 대해 중국이 재확약했다는 것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선전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앞으로 북한의 행보는 어떠한 것인가? 우선 북한은 중국의 후원과 미국과의 대화 모멘텀을 살리면서, 한국 정부가 고립되어 입장을 완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내하고자 노력할 것이다. 특히 북한은 중국과 미국이 남북 긴장완화와 6자회담 개최를 원한다는 인식 하에서 두 나라의 영향력을 통해 남북한의 입장차이가 중재될 것을 기대할 것이다. 특히 북한은 한국에게 6자회담 개최와 천안함 연평도 문제가 분리될 수 있는지를 테스트하면서, 남북당국관계 복원 및 대북지원 재개 상황을 이끌어 내려 노력할 것이다. 이 모든 노력에서 북한은 자신의 입장은 최소한으로 변경하고자 할 것이며, 한국과 미국을 분리시키려 할 것이다. 이러한 시도가 실패하는 경우, 북한은 한국정부를 대내외적으로 고립시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며, 한국을 거치지 않고 미국과 직거래해야 함을 역설할 것이다. 아울러 한국과 미국에 대해 위협 능력을 과시하거나 또는 위협 시늉을 할 것이다. 이것도 실패하는 경우, 북한은 또 다시 한국을 직접 공격하는 또는 핵능력 증강을 과시하는 강경도발을 시도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과정에서도 북한은 중국으로부터 외화를 벌어들이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고자 노력할 것이다. 개성공단과 같은 폐쇄형 특구 추가 설치(황금평 개발), 금강산 관광과 같은 입장료 수입 수취(나선특구), 그리고 광물 및 인력 수출 증대와 같은 사업을 하려 할 것이다. 이 모든 사업은 내부 개혁을 하지 않고서 정권 생존을 위한 외환을 획득하는 것이 목적이다.